

예술의상에 나타나는 몸의 왜곡과 변형의 이미지 연구

허정선* · 금기숙

상주대학교 이공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예술학과 교수

현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기호로 대표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의상이다. 의상이 전달하는 스타일은 단순한 양식이나 유행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소통의 코드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미디어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패션이 사회적 신분의 결과물로서 작용하던 시대가 존재했었지만, 오늘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정신과 이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의상에서 인간의 몸은 그것의 주체이자 존재 그 자체로서 모든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체나 몸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보다는 형식적 고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의상은 몸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대 예술의상에서 몸의 왜곡과 변형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몸이라는 의상의 근원적 요소를 철학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왜곡과 변형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의미 분석을 고찰하고자 한다.

몸의 철학은 서구 지성사에서 플라톤 이래 데카르트, 헤겔에 이르기까지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모더니즘의 사유체계로서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들은 합리주의적 인식론의 토대 위에 정신의 하녀로서 육체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었다. 데카르트적 사고에서 인간은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 정신의 우월을 주장하는 한편 반데카르트적 사고에서는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전체가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의상은 역사 이래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고 확장하며 왜곡하는 절대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도구상을 벗어나 현재는 점점 몸과 동일한 것으로서, 몸의 의미를 대신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산업사회의 기하급수적 발달과 핵전쟁, 기계문

명의 현대사회에서 각종 공해와 오염으로 인간과 동물에서 기형이 등장하고, 자기 불만족으로 인한 몸의 확대와 훼손으로 몸을 변형시키려는 등 여러 사회 문화적 현상들이 생겨났다.

이에 편승해 현대 예술의상에 등장하는 몸의 이미지들이 왜곡되어지고 변형되어지는 현상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몸의 기본적인 형태를 무시하고 제작된 의상작품들을 수집하여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인구범위로는 패션디자이너, 아트웨어작가, 화가, 조각가, 설치미술가, 행위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들 중 작가가 의상을 매체로 인간의 몸 이미지를 왜곡, 변형시키려 한 작가의지가 있는 작품들을 우선 선별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첫째, 몸의 축소와 확대의 이미지를 둘째, 몸의 왜곡과 변형의 이미지 셋째, 몸의 무시와 과장의 이미지 넷째, 몸의 반전과 역설의 이미지 등을 통해 자아의 연장과 인간존재의 재 탐구, 성의 정체성, 자유와 권력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지는 의상들로 대별됨을 볼 수 있었다.

즉, 의상은 몸의 본질적 주체로서 인간존재의 왜곡과 변형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의미망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외피로서뿐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 가시화하는 동시적 기능까지를 포함해 일련의 은유적인 의미들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표현면의 이미지가 몸의 왜곡과 변형의 이미지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간존재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재발견하려는 의지의 산출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많은 예술가들이 의상과 몸을 통해 다양한 의미체계를 구축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의상을 단순히 입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가 아닌 의미작용을 통해 다의성을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